



웹진으로
만나는
우리가족

우리가족

우리가 함께 만드는 우리은행 행내보

03

2021 March
Vol. 290

힘이 되는 동료



우리금융그룹

힘이 되는

동료



우리가족

우리가 함께 만드는 우리은행 행내보

03

2021 March Vol. 290

제15기 <우리가족> 편집위원

- 김선형 테헤란로금융센터 계장
- 김현정 서초남지점 계장
- 박영선 삼풍지점 주임
- 이다솔 신중동역지점 계장
- 이웅기 대치남지점 계장
- 이해주 상동역지점 계장
- 임지현 삼성로지점 계장
- 조은빈 혜화동지점 계장
- 조재민 구로디지털벨리지점 주임
- 황상현 인사부(따끈) 대리

발행일 2021년 3월 16일
 창간일 1998년 12월 1일
 발행인 권광석
 편집인 황선우
 발행처 (주)우리은행
 등록번호 서울중, 라00644
 담당자 브랜드전략팀 박해철 과장(02-2002-3952)
 기획+디자인 (주)이팝
 인쇄 엔투디프린텍



SPECIAL THEME

- 03 **스페셜 테마** 동료
 - 04 **스페셜 에세이** 좋은 동료는 누구일까?
 - 06 **스페셜 리포트** 우리가족에게 동료란?
-
- 10 **WOORI NEWS** 우리은행 뉴스
 - 14 **우리가족에게** 모두가 행복한 부산VG를 만듭니다
 - 18 **WOORI 人 SIDE** 우리금융 네트워크를 활용한 자산관리 파트너
 - 20 **디지털 나들이** 빅데이터로 맞춤형 금융을 제시하다
 - 22 **우리메신저** 우리가족 마음 특!
 - 24 **우리의 온도** 한 걸음에 환경이 살아나요
 - 26 **함께 꾸는 DREAM** 주얼리보다 빛난 진한 우정 한 조각
 - 30 **꽃피우리** 계장님 덕분에 우리은행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졌습니다
 - 32 **여행좋아行** '맛있는' 봄
 - 36 **心の hands** 동료의 심리가 궁금해
 - 38 **바른 건강 상식** 3월 24일, '잇몸' 사랑을 확인하세요!
 - 40 **두근 DO GOOD** 당신은 언제 동료에게 가장 고마웠나요?
 - 42 **마음잡표** 새로 시작하기 좋은 때, 봄 그리고 새벽
 - 43 **편집실 통신**

스페셜 테마



동료 : 같은 직장, 같은 부문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
 더불어 함께 할 수 있어 행복한 사람 그리고 그 이름, 동료입니다.

누구나 힘든 날이 있다
 내가 한 없이 부족하게만 느껴지는 날
 업무가 잘 풀리지 않는 날
 고객님이 원망스러운 날이 그런 날이 아닐까.
 막연한 두려움과 불안 속에
 갈 길을 찾지 못할 때
 유일한 처방, 그 이름이야 '동료'다.

오늘도,
 당신이 곁에 있어 힘이 됩니다.

좋은 동료는

누구일까?

글: 김창규(직장인, 작가)



그 후로 20년이 넘는 시간이 쏠살같이 지나갔다. 이제는 당시의 일을 잊을만도 한데 난 아직도 그들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했던 지난 일을 생각하면 이가 갈린다. 왜 그때 동료들은 나한테 못되게 굴었을까? 인간적으로 나빠서? 그렇다. 그 사람들은 지금 생각해 봐도 좋은 성품의 동료들은 절대 아니었다. 왜냐하면 난 그 후로 전근 간 다른 곳에서 만난 동료들과는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며 나름 즐거운 직장생활을 해 왔기 때문이다. 이것으로 미루어 보면 맨 처음 만난 인사팀의 동료들은 분명히 나쁜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이 물음에 답을 하기 전, “회사에서의 동료란 뭘까?”에 대해 생각해 봐야한다. 동료란 같은 직장이나 같은 부문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을 말한다. 친구라고 할 수도 있지만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함께 일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벗의 개념이 들어가 있는 친구와는 분명히 다르다. 그렇다면 직장에서 좋은 동료는 누구일까? 나를 배려해 주고 친절하게 대하는 동료가 좋은 동료일까, 아니면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되는 동료가 좋은 동료일까? 후자이다. 사실이 이렇다면 나를 못살게 했던 그들은 진실로 나쁜 동료가 아니었다. 당시 정신없이 바쁜 그들에게 도움이 되지 못했던 내가 오히려 나쁜 동료였던 것이다. 이후 인사팀에서의 혹독한 경험으로 업무에 정통해진 나는 이후 어느 팀으로 가던 대접을 받았다. 왜? 그들은 성격이 좋아서? 아니다. ‘돌아어’ 보존법칙이 있듯이 어느 조직이나 못된(?) 사람은 있게 마련이다. 내가 동료들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내가 어느덧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성장했기 때문이다.

도움이 되는 사람이란 물론 일단 잘하는 사람만을 뜻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인간성이 좋은 것도, 팀의 사기를 북돋을 줄 아는 것도, 음지에서 묵묵히 일하는 것도, 비전을 제시해 주는 것도 그것이 뭐든지 함께 일하면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되면 된다. 잠깐 휴식에서 깨달은 이 이치, 즉 “좋은 동료는 도움을 주는 사람”임을 누구에게나 말해주고 싶다. ☺

작가소개 김창규
입사 22년 차 직장인이다. 실제 경험을 녹여낸 회사 보직자의 애환을 SBS 뉴스 '인ایت'에 연재 중이다.

답답한 사무실에 있다가 잠시 바람을 쐬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다. 파티션으로 구분되어 있는 팀들 사이로 만들어진 복도를 따라 나가다가 우연히 화가 잔뜩 난 것 같은 신입직원과 눈이 마주쳤다. 그는 황급히 표정을 누그러트리며 눈길을 돌렸지만 난 그의 별개진 얼굴을 보고 단박에 팀장이나 선배에게 얼빠지게 혼이 난 것임을 직감했다.

밖에 나왔다. 이제 봄이 다가오는 3월이라 그런지 밖의 날씨는 온화했고 시원한 바람에서 상쾌함이 느껴졌다. 이때 아까 열 받은 신입직원이 떠오르면서 과거 내가 신입사원 때 팀장과 동료들 때문에 힘들어 했던 기억들이 머릿속에서 마구 튀어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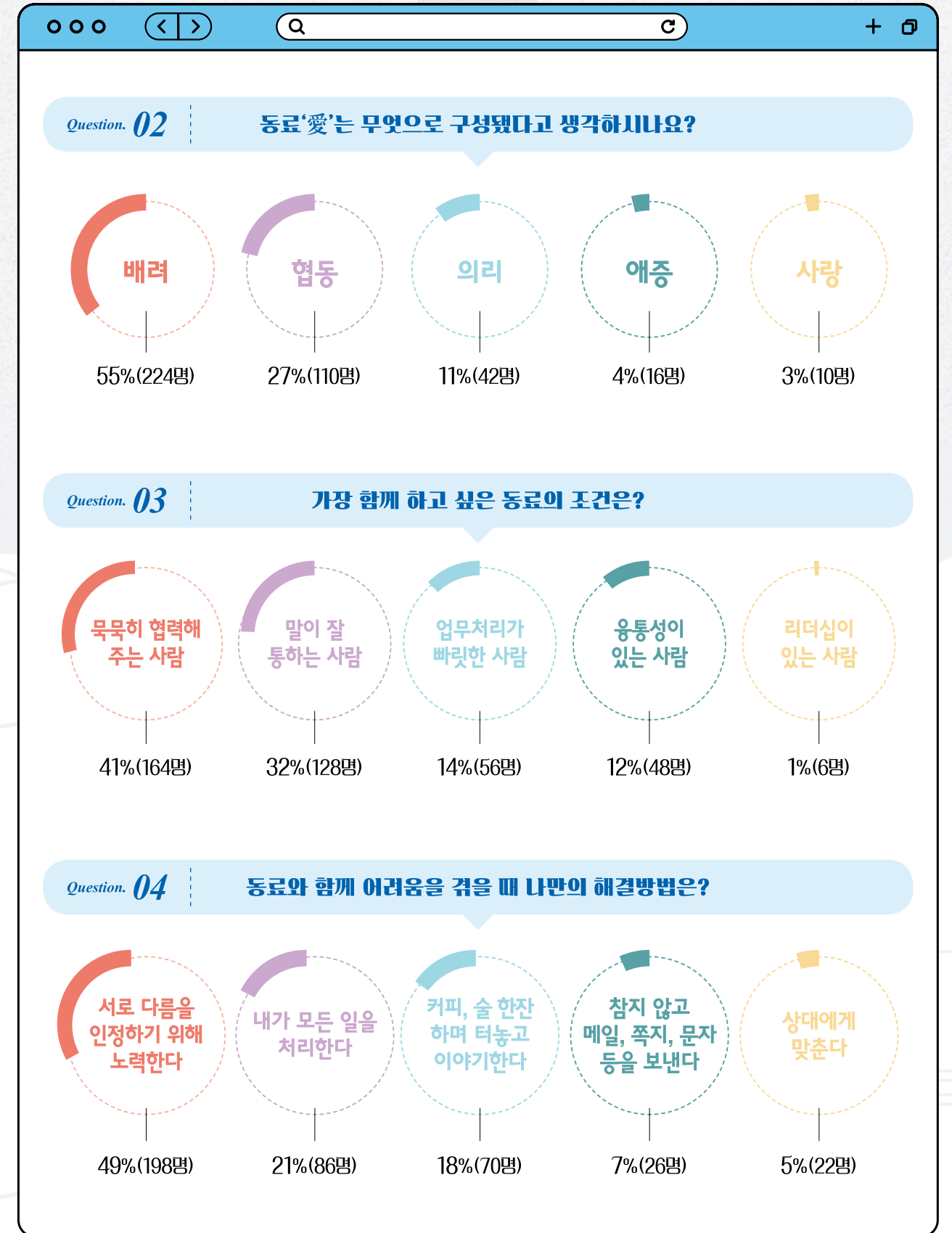
나는 입사하자마자 인사팀으로 발령을 받았었다. 최고의 팀에서 최고의 일꾼이 될 것을 자신하며 첫발을 내딛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반갑게 맞이할 줄 알았던 팀장과 직장 선배들은 환영한다는 의례적인 말을 건넨 후에는 나를 그냥 방치했다. 할 일 없이 며칠 무위도식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과장이 나를 부르더니 자료 정리 도와달라며 숫자가 잔뜩 들어 있는 엑셀파일을 주면서 이렇게 저렇게 자료를 취합하여 뭔가를 만들라고 했다. 그런데 아이고, 난 그 엑셀작업을 할 줄을 몰랐다. 그 과장은 난처해하는 나를 한심한 눈초리로 보더니 그냥 자신이 하겠다고 했다. 이후에도 동료들은 업무를 가르쳐주지도 않았으면서 모르면 면박을 주거나 답답하다는 티를 대놓고 해대니 난 그만 팀에서 고문관이 된 것만 같았다. 당시 팀장도 나를 바보로 만드는데 한 몫 했다. 내 잘못을 어찌나 잘 지적하고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던지... 그렇게 억울함, 자괴감 및 분노가 분수처럼 솟구칠 때 나도 아까 그 직원처럼 얼굴이 별개지면서 씩씩댔었다.

우리가족에게 동료란? “배려하며 협력해 주는 사람”

당신 곁에 있는 사람, 가족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 그래서 더 마음이 쓰이는 사람이 바로 동료 아닐까요?
입사 동기부터 일로 만난 동갑내기, 후배, 선배까지 동료는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무엇으로 함께 나아가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설문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만드는 <우리가족> 설문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참여인원 우리가족 402명 • 조사기간 2021년 2월 26일부터 3월 5일까지 • 조사방법 행내포털에서 실시
 • 참여방법 행내 전체 게시판에서 '함께 만드는 우리가족' 팝업창이 보이면 클릭하세요!
 다음 호에도 재미있는 설문으로 찾아갑니다. }

Question. 01 | 동료의 성격과 행동이 회사 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



동료가 있어 가장 힘이 나는 때는 언제인가요?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는 우리가족들의 '동료가 있어 가장 힘이 나는 때'를 소개합니다. 지면에 모두 담지 못해 아쉬울 만큼 보기만 해도 힘이 나는 이야기들, 볼수록 행복해지는 다양한 이야기를 고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지점 실적으로 걱정할 때, 책임자급이 먼저 헤쳐 나가자며 협업하는 모습을 볼 때.”

“글 쓰는 도중 생각나는 동료가 많아 정말 행복하네요. 설문조사 하러 들어왔는데 '나 잘 살고 있구나' 느끼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직장동료 관계를 넘어 회로애락과 감정을 나누는 관계로 발전할 때 더욱 힘이 됩니다.”

“나 대신 진상 고객을, 진상 직원을 대신 욕해줄 때.”

“연륜과 경륜으로 감히 생각지도 못한 부분을 해결해 주실 때.”

“어렵거나 힘든 일이 생길 때 같이 도와주려는 마음을 알게 됐을 때.”

“급하게 해결해야 할 사안이 발생했을 때 격려해 줄 때. 그냥 조건없이 통하는 사람이 동료죠.”

“불합리한 것을 요구하는 고객을 응대할 때, 나의 편이 되어주는 동료가 있어 든든하지요.”

“머리를 맞대어 해결책을 찾을 때 진짜 고맙고 힘이 나죠.”

“어느 부분까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이드를 해주는 선배가 있어 힘이 납니다.”

“과다한 업무로 힘들 때 옆에서 놓치는 부분을 서포터 해줄 때.”

“특별한 말을 하지 않아도 눈빛만으로 토닥여줄 때, 당신의 마음 잘 알았습니다.”

“나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 옆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힘이 나요.”

“아무리 힘들어도 괜찮다, 수고했다 한마디면 돼요.”

“모든 면에서 힘이 난다. 내가 존재하는, 그들이 존재하는 이유. 바로 동료애인 것 같다.”

“다들 힘들니까 나의 힘든 점은 애써 숨겼는데, 상대방은 미리 알고 있었다는 것! 오늘도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있어 힘 낼 수 있는 하루입니다.”

“동료와 사소한 농담으로 깔깔 웃으면 힘든 것도 날아가지요. 이 맛에 출근하지 싶어요.”

“타 지점에 업무를 부탁 해야할 때가 종종 있잖아요. 이 지점에는 누구에게 부탁해야 하나 고민하던 중 함께 연수원에서 공부한 우리 동기의 이름이 보이면 마음이 조금 놓입니다.”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을 때.”

“동료가 날 존중해 주었을 때. 서로 존중할 수 있죠.”

“가장 중요합니다. 말이 통할 때.”

“무조건, 어떤 상황이어도 내 편이 되어줄 때”

사진으로 보는 CEO 동정

2021. 02. 02

LG CNS 임원진 방문



2021. 02. 04

롯데그룹 오찬



2021. 02. 08

한국투자공사 해외투자협력 업무협약



2021. 02. 12

실연휴 본점 상황실 방문



2021. 02. 17

대구경북 VG 영업현장 방문



2021. 02. 18

대전충청 VG 영업현장 방문



2021. 02. 19

확대영업본부장회의



2021. 02. 21

농구 시즌 최종전 관람 (정규시즌 우승)



2021. 02. 22

자산관리리더스 출범식



2021. 02. 22

케이뱅크 은행장 내방



2021. 02. 24

네이버파이낸셜 소상공인 금융지원 업무협약



2021. 02. 24

우리가족 걷음기부 캠페인



WOORI NEWS

1 우리금융, 예금보험공사와 함께 설맞이 취약계층 지원



우리금융그룹은 지난 2월 2일 예금보험공사, 한국사회복지관협회와 함께 서울시 중구 중림동 소재 중림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해 '우리행복상자' 전달식을 가졌다. 우리행복상자는 지역사회 취약계층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11가지 식료품 및 간편식으로 구성됐다. 이번 우리행복상자는 사회적 기업 및 (사)한국농공상용합형 중소기업연합회에서 추천한 중소기업에서 생산된 물품으로 준비돼 지역사회 취약계층 지원뿐만 아니라 영세기업의 코로나19 극복에도 힘을 보탤 예정이다. 우리은행 영업본부 및 예금보험공사 소속 임직원들은 2,000개의 '우리행복상자'를 마련했으며, 한국사회복지관협회 산하의 전국 종합사회복지관을 통해 취약계층에 전달됐다.

2 견조한 펀더멘탈 입증한 2020년 우리금융그룹 실적

우리금융그룹은 지난 2월 5일 실적발표를 통해, 2020년 당기순이익 1.3조 원을 시현했다고 밝혔다. 2020년에는 캐피탈, 저축은행 인수합병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에도 자산건전성 개선 등 견조한 펀더멘탈 유지 및 미래 불확실성에 대한 적극적 대비로 2021년 실적 터어라운드 기반을 다졌다. 이자이익과 비이자이익을 합한 순영업수익은 약 6.8조 원 규모로 전년 수준을 유지했다. 특히,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인 리스크 중심 영업문화의 성과로 건전성 부문은 더욱 개선됐다. 이러한 건전성 개선을 바탕으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한 대손충당금을 선제적으로 적립했고, 사모펀드 관련 비용도 사전에 충분히 반영해 미래의 불확실성을 제거했다. 한편, 주요 사회사별 연결 당기순이익은 우리은행 1조 3,632억 원, 우리카드 1,202억 원 및 우리종합금융 629억 원을 시현했다.

우리은행, 효율적이고 신속한 문서협업 도입

우리은행은 효율적인 문서작성 및 신속한 보고방식의 혁신을 위한 '문서협업'을 4월부터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문서작성 시에는 내용입력과 구성 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됐으나, 웹문서를 이용한 '문서협업' 도입에 따라 스토리 중심 문서작성으로 작업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되어 업무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부서·개인별로 문서를 보관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클라우드에 문서를 저장해 공동작업 및 편집이 가능하며, 필요한 문서를 빠르게 검색해 활용하는 등 본격적인 협업 업무가 가능하게 된다. 각종 회의 시에도 문서협업 시스템에 접속해 노트북 또는 태블릿PC를 활용한 페이퍼리스(Paperless) 회의시스템을 구축해 환경 보호에 기여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개인 휴대폰 및 태블릿PC를 이용해 문서작성 및 편집을 할 수 있는 스마트오피스 환경 구축으로 재택근무 등 비상상황 발생 시에도 업무 연속성이 유지되도록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

*문서협업 : 간편한 문서작성, 편리한 문서 공동작업 및 공유기능이 탑재된 '문서협업' 중심의 협업툴



4 권광석 우리은행장,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 참여



지난 2월 24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권광석 우리은행장이 직원들과 함께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에 참여했다. 이번 공익 캠페인은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참여자가 교통안전 슬로건을 SNS에 게시하고 다음 릴레이 참여자를 지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권 행장은 윤종원 IBK기업은행장의 지명을 받아 이번 캠페인에 동참했으며, 교통안전 슬로건을 들고 사진을 찍어 우리은행 공식 SNS에 게시했다. 더불어 권 행장은 다음 릴레이 참여자로 우리은행 대표 고객인 흥중식 금전기업 회장, 한영재 노루홀딩스 회장, 강성희 오텍그룹 회장을 지명했다.

WOORI NEWS

5 우리금융, '그룹공동 클라우드' 플랫폼 구축

우리금융그룹은 지난 2월 1일 그룹 디지털 혁신 추진의 일환으로 '그룹공동 클라우드' 플랫폼을 구축했다. 그룹공동 클라우드는 우리은행 등 자회사 개별 시스템을 통합해 서버와 네트워크 등 IT자원을 필요한 만큼만 할당하고, 사용 후에는 회수해 여유 자원을 그룹사가 재사용할 수 있는 공유형 IT자원 관리 플랫폼으로 디지털 혁신을 위해선 필수다. 우리금융그룹은 이번 그룹공동 클라우드를 올해 신규 프로젝트부터 적용해 그룹 IT시너지를 높이고 IT운영 효율성을 강화해 그룹의 디지털 혁신을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6 우리금융, 이사회 내 'ESG경영위원회' 신설

우리금융그룹은 지난 2월 5일 우리은행 본점에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이슈에 대한 효율적 의사결정 및 실행력 강화를 위해 이사회 내에 'ESG경영위원회'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ESG경영위원회는 그룹 ESG 전략 및 정책을 수립하고, ESG 관련 각종 추진 현황을 보고받는 등 그룹 ESG 경영 전반에 대한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ESG경영위원회는 우리금융지주 사내·사외이사 9인 전원으로 구성되고, 위원회 신설은 다음 달 지주 이사회에서 최종 승인될 예정이다. 앞서, 우리금융그룹은 지난해 연말 조직개편 시 지주와 우리은행에 ESG 전담부서를 신설했고, 지난 1월에는 그룹 ESG경영협의회도 설치하는 등 그룹 ESG 거버넌스(지배구조) 체계를 견고히 구축했다.

7 우리금융, 특성화고 디지털 인재 육성에 앞장선다

우리금융그룹은 취약계층 특성화고 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디지털 인재 육성을 위한 온라인 멘토링을 진행했다. 지난 2월 21일 밝힌 이번 멘토링은 우리금융그룹이 추진하고 있는 '특성화고 디지털 인재 육성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특성화고 디지털 인재 육성 프로젝트는 높은 사교육비로 인해 디지털·IT 기술 학습을 위한 진로개발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특성화고 학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2년째 지속되고 있다. 이번 온라인 멘토링 교육은 빅데이터·보안·API·웹개발·인공지능 등 학생들의 진로탐색과 실무능력 개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특히, 특성화고를 졸업하고 현재 우리에프아이에서 실제 근무하고 있는 선배 직원이 참여해 실시간 채팅을 통한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이 진행되기도 했다.



8 우리소다라은행, 'BUKU3' 등급 취득, 중대형은행으로 도약

우리은행의 우리소다라은행이 지난 2월 14일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OJK)로부터 'BUKU3' 등급을 취득했다. 인도네시아는 자본금 규모에 따라 BUKU1부터 BUKU4로 분류하고 있는데, 'BUKU3' 등급은 기본자본 5조 루피아(한화 3,970억 규모) 이상으로 BUKU 등급이 상승하면 현지에서 영위할 수 있는 사업 범위가 확장된다. 우리소다라은행의 작년 말 기본자본은 5.2조 루피아(한화 4,130억 규모)로 'BUKU3' 승격 요건을 충족해 최근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으로부터 정식 승인받았다. 이로써, 우리소다라은행은 방카슈랑스 영업 강화 및 증권 위탁서비스를 추가해 사업영역을 한층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WOORI NEWS

9 우리은행, '실손보험 빠른청구 서비스' 출시 2주만에 1,200건 돌파

우리은행은 지난 1월 21일 출시한 '실손보험 빠른청구 서비스'를 통해 2주만에 1,200건의 보험금 청구가 이뤄졌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실손보험 빠른청구 서비스는 실손보험 가입자가 진단서 등 종이서류 없이도 모바일뱅킹 앱 WON뱅킹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로, 우리은행은 병원 입점 영업점에 스탠드 배너를 포함한 각종 안내물을 설치해 고객들이 병원 진료 이후 신속하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고 있다. 실손보험 빠른청구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들은 "주거래은행 모바일뱅킹 앱으로 손쉽게 보험금 청구 전 과정을 신청할 수 있어 편리했다"고 전했다.

10 우리은행, 삼일절 맞아 내가 독립운동가라면 SNS캠페인 실시

우리은행은 오는 3월 31일까지 삼일절을 맞아 참여형 콘텐츠 플랫폼 '방구석연구소'와 함께 고객 참여형 SNS캠페인 '내가 독립운동가라면?'을 실시한다. 이번 캠페인은 MBTI기반 알고리즘으로 고객응답을 분석, 성향 도출하는 레이블링 게임을 통해 삼일절의 의미를 되새기고 잘 알려지지 않은 독립운동가들을 재조명하기 위해 기획됐다. 또한 삼일절 만세운동을 온라인에서 재현하는 '기억하_길' 캠페인도 진행되며 기부 프로젝트를 통해 독립운동을 위한 사업에 참여 1건당 1천 원씩 기부되는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참여방법은 방구석연구소 플랫폼(www.banggooso.com)에서 '나와 닮은 독립운동가 테스트'에 참여하고, 본인의 결과 페이지를 '#기억하_길' 해시태그를 달아 인스타그램에 공유하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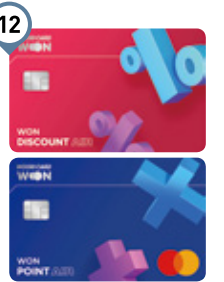
11 우리금융캐피탈, 창립 27주년 맞이 사회공헌 전개

우리금융캐피탈은 장기화된 코로나19로 도움이 손길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위한 친환경 마스크 구입비로 1천만 원을 사단법인 희망조약돌에 전달했다고 지난 2월 22일 밝혔다. 우리금융캐피탈은 매년 창립기념일을 소외된 이웃에게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는 날로 정하고 사회공헌활동을 펼쳤다. 올해는 우리금융그룹 편입 후 첫 창립기념일을 맞아 ESG 관점과 연계한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해 눈길을 끈다. 친환경 생분해 소재의 마스크 1만 1천 장을 취약계층에 전달하고 임직원들에게서 도서 및 헌옷을 기증받아 자원순환을 통해 소외된 이웃을 돕고 환경을 지키는 방안을 마련했다.



12 우리카드, 일상에 디지털 더한 카드 출시

우리카드는 전 가맹점 뿐 아니라 일상생활 및 디지털 생활 모두에 특별한 혜택을 제공하는 모바일 전용 상품 'WON POINT AIR', 'WON DISCOUNT AIR' 2종을 출시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WON POINT AIR'는 국내 모든 가맹점 이용 금액의 0.8%를 기본적으로 적립할 수 있고, 디지털 및 일상생활 필수 혜택이 더해졌다. 국내 모든 가맹점에서 전월 실적 및 한도 제한 없이 0.7%가 할인되는 'WONDISCOUNT AIR'는 디지털 생활을 관련 할인, 대중교통, 휴대폰 통신요금 등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ESG경영 실천을 위해 전기차 충전 플랫폼을 운영하는 스타트업 (썬소프트)과 협업하여 관련 서비스도 담았다. 'EV Infra' 앱을 통해 전기차 충전 시, 'WON POINT AIR'의 경우 이용금액의 5% 적립, 'WON DISCOUNT AIR'는 1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VG 그리고 구성원의 강점은 바로 '상호보완'

부산VG는 지역 입지상으로는 부산의 구도심이라 불리는 부산 동구, 중구, 영도구의 위치한 지점들이 하나로 그룹핑됐다. 지점들 간에는 다소 거리가 있지만 VG 소속 지점들의 거래 기업의 특성은 비슷하다. 조선, 해양, 물류, 수산 업종 등의 기업 고객이 주를 이루고 있었으나 점차 조선, 수산 등의 관련 업종의 사양과 주변 지역의 노후화로 영업기반이 전반적으로 취약해져 가고 있는 중이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훈풍이 불기 시작했다. VG 첫 시행 후 진행된 평가에서는 제도의 표본이 될 만큼 말이다.

“최근의 주식시장을 철저히 분석해 리서치 기반의 펀드 리밸런싱을 통해 수익 창출에 주력했고, 전행적 관심사였던 개인 IRP유치에도 전 직원이 집중했습니다. 저를 포함해 PB출신 지점장님 셋, 중소기업 RM 출신 지점장님 셋으로도 구성된 영업협업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서로의 강점을 극대화하고, 약점은 보완하다 보니 부산VG는 VG그룹 시행이 영업의 변곡점으로 작용했어요.”

웃으며 일할 수 있는 '진짜' 이유

장세비 영업그룹장이 부산VG의 수장이 되면서 강조한 것은 세가지다. 앞서 이야기한 VG간 협업을 위해 지점이 노력하자는 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힘이 들어도 즐거운 분위기의 지점을 만들자다. 마지막으로 스테디를 게을리 하지 말자는 것이다.

“전 직원들이 자기 몫은 스스로 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매일 긴장을 늦추지 않고 영업을 하고 있지요. 하지만 늘 긴장만 하고 있을 순 없으니 서로 격려하는 시간을 많이 만들었어요. 사소하게 보일 수 있지만 직원들 생일날 꼭 집으로 화분을 보내요. 실적인 우수한 직원에게는 휴가 때 숙박권을, 첫돌을 맞은 직원 자녀에게 예쁜 옷을 선물하죠. 서로가 서로를 챙기지 않으면 누가 챙기겠어요.”

마음에서 우리나라야 할 수 있는 일, 사소해서 넘어갈 수 있는 일을 놓치지 않고 직원 간의 돈독한 정을 쌓아간다. 이밖에도 복직이는 객장에서 직원들이 웃으면서 일할 수 있는 진짜 이유가 따로 있다. “부산 VG의 강점은 무엇보다 '본인의 위치에 맞는 역할을 해내는

것'이에요. 모두가 자신의 자리에서 충실이 목표를 이뤄내고 있어 혼자만이 아니라 함께 성장할 수 있으며, 더욱 건강한 조직으로, 조직원들은 행복하게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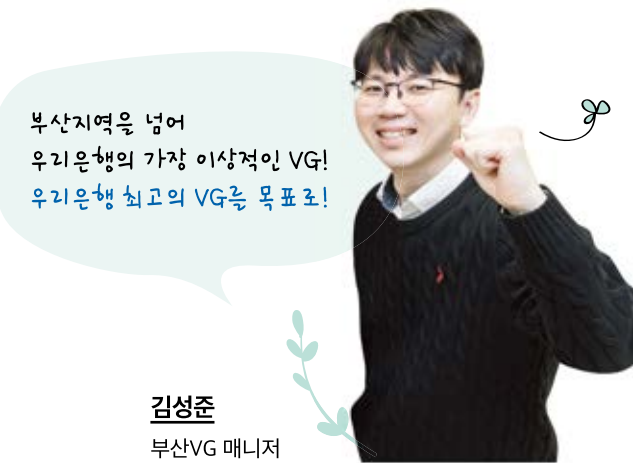
모든 직원이 함께 도전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평균 실적을 유지할 수 있게 된 셈이다. 단기간에 만들어진 성과라고 해서 금방 무너질 게 아니란 이야기다.

안주하지 않고 만들어가는 성장 동력

부산VG의 일처리와 영업이 깔끔하다는 소문이 나면서 기업 키맨을 통해 꾸준한 소개가 들어오고 있다. 소개에서 그치지 않고 기업을 우리은행 고객으로 만드는 것, 새로운 고객에게 새로운 문을 열어주는 역할은 영업그룹장과 지점장이 한다면 그 다음 역할은 직원들에게 달렸다. 이에 장세비 영업그룹장이 강조하는 것이 '준비된 금융전문가로서 개인의 역량을 키우는 것'이다.

“VG 미팅을 하거나 차를 마시는 시간 5분이라도 스테디를 해요. 이 시간을 활용하려고 자발적으로 직원들은 스테디를 해 옵니다. 선배배가 서로 끌어주며 공부도 하고 선배들은 아이디어도 얻으며 안주하지 않아요. 부산VG의 성장 동력은 스테디에서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건강과 삶의 행복으로 밑바닥을 다지며, 성장 동력을 만들어 나가는 부산VG. 장세비 영업그룹장은 “VG제도 시행에 가장 모범적인 VG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성적을 포함해 모든 면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전했다. 그녀가 전하는 포부는 그저 마음속에 지닌 원대한 희망만이 아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있기에 희망을 증명해 나간다는 것, 그래서 앞으로 나아갈 길이 더욱 기대되는 부산VG의 행보가 더 주목되는 이유다. ☺



김성준
부산VG 매니저

마음모아 행복한 부산VG 그룹



교통의 요지에서 금융의 요지로

· 초량지점 ·

초량이라는 지명은 '풀밭의 길목' 즉 교통의 요지라는 뜻입니다. 매일 다양한 고객님들을 마주하며 힘차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1년 부산VG 그룹 내에서 금융의 요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초량지점, 부산VG 그룹, 우리은행 파이팅!



100년의 역사, 이제는 부산VG의 역사를 쓴다!

· 부산부평동지점 ·

부산부평동지점은 중구 부평동강동시장 인근에 위치해 소상공인 고객님들이 많습니다. 100년의 역사를 보유한 부산부평동지점은 멋진 지점장님을 필두로 최고의 직원 14명이 서로를 도와가며 확고하게 근무하는, 부산VG 그룹 내 최고지점이라고 자부합니다.



마음에 마음을 더해, 합심하는 지점!

· 영도지점 ·

부산바닷가만의 특색을 지닌 영도지점은 영도지역 주민들이 주요 고객입니다. 2020년 영도중앙출장소 통합 후 전직원들이 합심해 부산VG 그룹의 선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산VG 그리고 영도지점 파이팅!!!



"내가 먼저, 우리같이"

· 범일동지점 ·

부산의 명물, 역사 깊은 재래시장인 지사장과 함께하는 부산 최고의 범일동지점입니다. 톡톡 튀는 스파클링 같은 직원들이 하나되어,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가진 김현희 지점장님의 선두지휘 아래 2021년 상반기, 부산VG 'S'를 향해 열심히 달려나갈 것입니다. 부산VG 파이팅, 범일동지점 파이팅!



최고의 VIP 응대

· TCP부산 ·

TCP부산센터는 지방에 있는 유일한 TCP센터로 2020년 TCP센터에서 1위를 기록하였습니다. 소수의 인원이지만 최고의 인재들로만 구성되어 일당백을 해내고 있습니다. 부산VG 그룹의 지점들과 협업하여 지방 최고의 VIP 업무를 제공할 것입니다.

우리금융 네트워크를 활용한

자산관리 파트너, 우리종합금융

KPI 평가 지수 중 하나인 '연계영업', "어떻게 구축해야 할까?"에 대해 물음표를 가지고 있다면 '고객 니즈'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최근 연계영업이 단순한 영업방식 그리고 평가 항목 중 하나를 실현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다변화된 고객 니즈를 충족시키는 하나의 전략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종합금융의 회사채, 전자단기사채 등의 상품을 소개해 줌으로써 폭넓은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고객의 자산이 타 금융기관으로 이동하지 않고 우리금융지주 내에서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고객의 호응을 얻는다. 이러한 서로의 역할을 보완해주는 연계영업에 대해 우리종합금융 서울영업부 정호영 차장을 만나 이야기를 들었다.

글: 김민선 사진: 정우철(스튜디오집)



정호영
우리종합금융 서울영업부 차장

우리종합금융 서울영업부 그리고 차장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우리종합금융(이하 우리증권) 서울영업부는 총 7명의 인원으로 구성된 영업점으로 다른 금융기관의 수신지점과 마찬가지로 정기예금 및 회사채, 전자단기사채(이하 전단체) 판매 등을 위주로 영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중 우리은행과의 연계영업을 통해 고객님에게 우리증권의 정기예금과 금융투자상품을 소개합니다. 저는 2005년 우리증권에 입사해 영업점에 10년 이상 근무했고, 시너지추진부를 거쳐 서울영업부에 근무 전까지 연계영업부에서 여신을 담당했습니다.

우리은행과의 연계영업의 주목적은요?

연계영업은 우리금융지주가 출범할 당시 은행과 증권 간의 연계를 통해 영업을 활성화하려는 의미로 시작됐습니다. 고객의 니즈 충족과 고객의 자산이 타 금융기관으로 이동하는 것을 예방하고, 폭넓은 자산관리 서비스를 원하는 고객님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도 있습니다. 이에 연계영업은 우리은행만이 우리종합금융에 도움을 준다는 인식보다는 거래 고객의 니즈에 맞춰 계열사 그리고 계열사의 상품을 소개해 준다는 인식이 서로 갖춰졌으면 합니다. 고객님의 자산이 그룹 내 머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제시한다면 향후 거래 시 은행으로 다시 돌아오는 선순환 구조가 이어질 것입니다. 고객님의 자산이 늘어나면 일부는 은행에, 일부는 계열사 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종합금융연계영업 상품의 강점은 무엇인가요?

지난해 말부터 우리증권에서 판매 중인 회사채, 전단체에 대한 은행 측 문의와 소개가 더 많아지고 있음을 부쩍 실감합니다. 특히 전단체의 경우 우리증권이 다양한 상품을 보유하고 있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또 우리증권은 보유하고 있는 상품을 판매하기에 타 증권사들보다 상품의 안전성이 높은 편입니다. 보유상품에 대한 철저한 심사와 검증은



거쳤기 때문입니다. 우리증권은 코스피에 상장된 기업이기 때문에 투명한 공시를 하며 동종계열 내 자회사에서도 안정적인 성장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은행 직원들이 증권 상품을 권유드릴 때, 권유 포인트를 말씀해 주신다면요?

정기예금상품인 발행어음은 우리증권이 직접 어음을 발행하는 예금자보호상품으로 은행보다 금리가 높다는 이점이 있으며, 여유자금을 최대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개인은 비대면으로 개설 시 0.1% 금리우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단체의 경우 앞서 말씀드린 우리증권의 강점을 우선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상품 자체가 금융투자상품이므로 리스크에 대한 충분한 설명도 필요하겠습니다.

전단체는 상품명만으로는 고객이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상품의 신용 등급과 함께 어떤 기업이 신용을 보강해 주는지를 안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전단체는 유동화상품이 대부분이다보니 신용을 어떤 기업이 보강해 주는지가 관건으로 신용 보강 기업의 신용 등급에 따라 리스크 크기가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의 목표와 계획에 대해서도 들려주세요.

향후 복합점포의 비중은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룹 전체 전산이 통합된다면 은행 상품만이 아니라 다양한 상품을 소개하는 기회가 많아질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연계영업은 향후 투자은행으로 발전했을 때 영업의 전초가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시너지를 증대하기 위해 우리은행과 더욱 협력하고 우리증권의 상품을 공급해 하시거나 가입을 원하는 고객님에게 직접 방문하는 영업을 적극적으로 펼치겠습니다. ☺

| 부서 소개 | 우리종합금융

우리증권은 현재 국내 유일의 종합금융회사로서 우리금융지주의 자회사다. 종합금융업 라이선스를 기반으로 수신, 여신업무뿐만 아니라 프로젝트 파이낸싱, 채권 인수·중개·운용, 외국환, 크라우드펀딩 등 폭넓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2019년에는 CIB조직을 출범해 은행 IB그룹과 공동투자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한편, 우리증권은 2013년 우리금융그룹 편입 이후 지속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효율성 최고의 투자은행을 위한 도약'을 목표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빅데이터로 맞춤형 금융을 제시하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고객행동 기반 개인화 마케팅

금융 측면에서도 실시간으로 고객행동정보를 통해 금융 니즈를 파악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이 점점 더 강조되고 있다. 다소 방대하게 풀어져 있는 정보들이 하나의 데이터베이스화를 통해 마케팅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이다. 때문에 관련한 변화와 새로운 움직임은 각 금융기관들의 필수 과제가 되었고, 특히 은행권에서도 '디지털'이 강조되며 앞다투어 혁신을 준비하고 있다. 그렇다면, 지난 1월 우리은행에서 발표한 '빅데이터'를 활용한 고객행동 기반 개인화 마케팅'은 어떤 모습을 갖추고 있을까?

정리. 브랜드ESG그룹 박해철 과장 자료 제공. 빅데이터 사업부, 디지털 사업부



고객에게 최적의 상품을, 빠르게!

'빅데이터'를 활용한 고객행동 기반 개인화 마케팅(이하 개인화 마케팅 시스템)은 기존에 활용했던 고객 인적정보와 거래정보 등 정형데이터와 상담내역(음성), 입출금내역(텍스트), 인터넷/스마트뱅킹 이용내역(로그) 등 모든 채널의 비정형 고객행동정보를 인공지능(AI)으로 분석해 개인별 최적화된 맞춤형 상품을 추천하는 방식이다. 형태나 구조가 복잡하여 정형화되지 않은 비정형 데이터는 그 성격상 기존에는 마케팅 활용성이 떨어졌다. 때문에 방대한 정보의 양에 비해 사용도가 높지 않았는데, 이번에 비정형 데이터의 정비가 가능할 수 있게 구축되면서 그 풍부한 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최적의 상품을 빠르게 추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85%까지 개선된 음성인식률

이번 개인화 마케팅 시스템은 특히 차별화된 특징을 몇 가지 지니고 있는데, 가장 먼저 주목할 만한 점은 바로 '개선된 음성인식률'이다. AI 스피커 등을 통해 보다 우리에게 친숙한 개인인 음성인식률은 데이터의 신뢰성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고객의 음성을 문자(텍스트)로 자동 전환해야 하며, 이 과정이 정확해야만 데이터의 품질이 더 높아지기 때문이다. 기존 국내 은행권에서 활용되던 음성인식률은 약 70~75% 수준이었는데, 이번에 우리은행의 구축 시스템은 약 80~85% 이상으로 높아지면서 상당히 높은 수준의 데이터를 도출해낼 수 있게 되었다. 때문에 이번에 구축한 자체 음성 데이터 분석시스템과 연계하여 개인 마케팅을 위한 자료로 활용시킬 수 있게 되었다.



데이터양의 증가는 고객 마케팅 활용 범위가 넓어진다는 것

비정형 데이터의 범위가 크게 넓어지면서 고객 마케팅에 활용 가능한 추출 데이터의 양이 방대해진 점도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상기했듯이, 기존의 정형데이터들과 비정형데이터가 함께 AI 기반으로 분석하게 되어 최적화된 상품 제공이 가능해진 것이다.



통합 마케팅 체계 구축, "고객 맞춤형 서비스로 발전 기대"

이번 개인화 마케팅은 개발기간이 1년 정도 소요됐으며, 그 기간 중에서도 70% 이상을 데이터 정비에 쏟아 부을 만큼 데이터 분석에 자원과 역량이 투입되었다. 비정형 데이터의 정비와 동시에 기존의 정형 데이터와 결합하는 통합 데이터베이스구축, AI 마케팅 모델을 마케팅 시스템과 연계하여 실적 집계, 모델 성능평가, 모델 재훈련까지 자동으로 진행하는 통합 마케팅 체계를 구축했다. '빅데이터'의 논리 속에서 이와 같이 지속적으로 쌓여가는 데이터들은 실행과 축적을 반복하며 분석을 거치게 되고 꾸준한 마케팅 시스템의 강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점점 발전해가는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는 가장 큰 부분이 아닐 수 없다. ◀

우리가족 마음톡!



우리가족끼리만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메신저!

받는 분에게 메시지와 커피 기프트콘을 전달해 드립니다. 우리가족에게는 우리가족의 응원이 보약입니다.

To. 관악구청 박수영 차장

빨강, 주황, 노랑, 초록, 파랑, 보라...
사람들 모두가 이 각각의 색깔을
다 좋아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것들
하나하나가 손을 잡으면 누구에게나
아름다운 무지개가 피어난다.
수영아! 힘들다 하기보다 오늘도
새로운 하나를 배웠다 생각하고
항상 힘내 응원할게. 힘내자!



From
개인과객부 이은주 차장

To. 수신서비스센터 양수영 차장



언니, 올해는 아프지 말고
건강 잘 챙겨야지.
꼭 건강 회복해서 우리 같이 놀러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해.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

From
구미인동지점 박정현 부지점장

To. 상무금융센터 송인옥 과장

항상 선배로서, 형으로서
항상 멋지고 힘찬 모습 보여줘서 고마워요.
벌써 3번째 지점에서 형을 만나는데
형이 있어 항상 든든하고 열심히 하고자
하는 마음을 먹게 되는 것 같아요.
함께 하는 동안 더 즐겁고 파이팅 넘치는
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From
상무금융센터 양원석 과장

To. 호계동지점 오윤희 계장



배우자로서, 직원으로서
항상 배우게 되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From
총무부 박진우 대리

To. 연금사업부 이천규 과장

형~ 같이 집단체 야근하면서
근무할 때가 잊그제 같은데,
얼굴 못 본 지 몇~년 됐네요.
그래도 얼마 전에 TV에서
형 봐서 너무 반가웠어요.ㅎ
뭔가 예전이랑 달라진 게 없는 듯한...
새로운 업무에 적응하느라 고생 많아요~
항상 건강하고 매일매일
즐거운 하루 보내요~!



From
대전중앙지점 임재승 대리

To. 하단동 지점 김지혜 대리

지혜야~
육아휴직 축하해!
예쁜 아기 잘 품고 있다가
짠~하고 5월에 만나자.
너를 알고 함께 하는 은행 생활이
참 즐겁고 행복하다는 걸 알고 있잖?
사랑한다. 지혜야!



From
메트로시티지점 김나현 과장

To. 신당역지점 김병국 과장

과장님~
인사이동을 한 지 이제는 조금 되었는데
ㅠㅠ 아직도 그렇습니다!!!
정말 모르는 게 하나도 없으셨던
과장님 밑에서 항상 든든한 마음으로
일을 했고, 저도 과장님 같은 분이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 중입니다ㅎㅎ
항상 감사하고 항상 응원할게요!!!
김병국 과장님 파이팅!!!



From
서울시실공단지점 안미현 계장

To. 수원금융센터 백지영 계장

헬프보다 더 든든한 백계장님~!
첫 지점에서 만난 비록 짧은 인연이었지만
지금까지도 항상 연락하고 지낼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서툰 업무마다 척척박사처럼 해결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이렇게라도 전하고
싶었어요. 앞으로도 이 소중한 인연
꼭~ 이어 갔으면 좋겠어요!!!
항상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셔서
감사해요. 사랑합니다♥



From
화성팔탄지점 백민경 행원

To. 수신업무센터 한원희 과장

제 옆자리에서 많이 도와주신
고마운 과장님~
첫 사회생활이었는데 과장님 덕분에
편하게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저는 다른 부서에 가지만
이 소중한 인연
계속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늘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From
수신업무센터 김진섭 계장

To. 산본지점 고승원 지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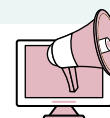
여성들이 얘기하는 친정 같이 편하고
세심한 배려 속에 직원들을 이끌어 주신
고승원 지점장님,
은행 은퇴 후 1년여 기간 중 행복하고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인화단결을 중시 여기는 지점장님,
어느 지점에 계시든 건강하시고
승승장구 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From
안산금융센터 김광열 관리역

신청방법

매달 행내 포털 전체 게시판에서 '우리 메신저' 팝업창이 보이면 클릭하세요.
다음호에도 우리가족의 마음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한 걸음에 환경이 살아나요

우리가족
걸음 기부 캠페인

코로나19로 인해 외부 활동도 자유롭게 않고,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하는 시간까지도 빼앗기고 있는 요즘. 착한 일이라면 늘 앞장서는 우리가족을 위해 준비한 재미있는 비대면 사회공헌활동, '우리가족 걸음 기부 캠페인'을 소개합니다!

글: ESG기획부 최진미 대리

우리은행 임직원이 함께 하는 건강 걷기

우리은행은 코로나19로 지친 우리가족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고, 환경을 위한 기부활동도 할 수 있는 비대면 사회공헌활동 '우리가족 걸음 기부 캠페인'을 3월 한 달간 진행합니다. 2년 간 직원들의 건강을 위해 진행되었던 '건강 걷기' 프로그램에 '기부'를 더해 다시 태어난 우리가족 걸음 기부 캠페인은 모바일 앱인 <빅워크>를 활용해 우리은행 직원들의 일상 속 걸음 수를 측정하고 걸음의 수만큼 기부하는 비대면 참여형 사회공헌활동입니다.

*빅워크: '걸음을 통한 기부와 건강 증진'을 목표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앱을 활용한 다양한 온·오프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참여형 기부 플랫폼. 사용자 걸음을 측정해 걸음 수 만큼 기부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앱.

1억 걸음 달성해 보아요

'우리 가족 걸음 기부 캠페인'을 통해 우리은행 직원들은 빅워크 앱을 설치한 후 3월 한 달간 측정 된 걸음수만큼 '우리은행 전용 걸음 모금함'에 기부됩니다. 우리가족 여러분이 한 걸음을 걸을 때마다 1원의 기부금이 적립되며, 걸음 수가 모여 1억 걸음을 달성하게 되면 환경단체에 1억 원의 기부금이 지원되는 형식입니다.

'우리 가족 걸음 기부 캠페인'을 통해 직원 여러분이 건강도 챙기고, 즐겁게 사회공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수 참여자, 그리고 우수 참여 부점에도 풍성한 선물이 전달 될 예정입니다. 캠페인에 아직 참여하지 못한 우리가족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

휴대폰 들고, 걸기만 하면 돼요!

분주한 일상 속 직원들의 걸음을 모아 환경을 지키는 기적이 되는 경험을 선물할게요. 우리 가족 여러분. 이제 휴대폰을 들고 함께 걸어볼까요?

*기부 가능한 걸음은 최대 10,000보까지 누적 가능!
*하루에 한 번은 꼭 앱을 실행해 걸음을 기부해주세요.

01 어플 설치

플레이스토어(안드로이드)
+
앱스토어(애플)

빅워크* 어플리케이션 검색

설치 완료!

02 회원가입

빅워크 실행 → 약관 동의 및 가입

캐릭터 선택(자율) → 닉네임 입력 (★본인 행번 입력★) → 그룹회원 전환

*상세한 회원가입 및 그룹회원 전환방법은 앱 내의 Q&A 참고

03 걷기

출퇴근 할 때, 점심 먹으러 갈 때, 개인운동 할 때, 장보러 갈 때, 주말에 산책 할 때, 심부름 갈 때

04 걸음 기부

메인 화면 하단 기부하기 클릭 → 우리은행 걸음 기부함 찾기

화면 하단 걸음 기부하기 클릭 → 걸음 수 선택 후 걸음 기부

우리 가족이라면 최대 걸음으로 기부 FLEX해요!



주얼리보다 빛난 진한 우정 한 조각

3년 전 입학 동기로 만나 이제는 누구보다 각별한 친구가 됐다는 성다는 계장과 김민희 계장. 나만의 특별한 주얼리를 만드는 클래스 정보를 먼저 접한 성다는 계장이 김민희 계장을 떠올린 것은 어찌 보면 당연했다. 관심사도, 취향도 비슷한 이들의 좌충우돌 커스텀 주얼리 만들기는 이렇게 시작했다.

글: 이은정 사진: 정우철(스튜디오오집)

입학 동기에서 '단짝' 친구로

성다는 계장과 김민희 계장은 2018년 입학 동기로 처음 인연을 맺었다. 180명 입학 동기 중에서 같은 반 같은 조로 만나, 신입 시절부터 좋은 일도 껏은일도 함께 겪고 헤쳐오면서 종이에 물감이 스미듯 어느새 서로에게 스며들었다. 관심사가 같아 대화를 시작하면 몇 시간이고 유쾌하게 수다를 떠다는 이들. 영화를 골라도, 책을 골라도, 심지어 쇼핑할 때도 취향이 비슷하니 애초부터 '단짝'이 될 운명이었는지도 모른다. 김민희 계장은 성다는 계장을 '다니'라고 불렀다. 한 살 많은 '다은 언니'의 줄임말이자 애칭이란다. 통상 사회에 진출해 친구를 사귀기가 쉽지 않다는데, 이들은 입학 동기를 넘어 진한 우정을 나누는 친구가 됐다.

"제가 주얼리를 정말 좋아해요. 아침에 깜박 잊고 귀걸이를 하지 않은 채 출근하면 종일 허전하고 불안해, 점심시간에 잠깐 짬을 내 귀걸이를 살까 생각할 정도죠. 커스텀(custom) 주얼리는 의미 그대로 주문 제작한, 세상에 단 하나뿐인 주얼리라서 김민희 계장과 함께 만들어보고 싶었어요."

성다는 계장은 커스텀 주얼리를 체험해 볼 수 있다는 정보를 접하자마자 김민희 계장을 가장 먼저 떠올렸다. 그 또한 주얼리를 좋아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었다. 물론, 김민희 계장도 기꺼운 마음으로 응했다.

"주얼리는 나를 드러내고 표현하는 수단이라고 생각해요. 요즘처럼 얼굴의 반 이상을 마스크로 가리는 때에는 귀걸이나 목걸이 같은 주얼리로 나만의 개성을 표현하고 기분 전환까지 할 수 있으니 더 좋죠."

Custom Jewelry



김민희
인천논현역지점 계장

성다는
대치동지점 계장



나를 표현하는 또 하나의 요소, 커스텀 주얼리

“이건 어때? 화려하지 않으면서도 예쁘다.”

“그러게, 정말 예쁘다. 그럼, 귀걸이는 이 디자인으로 할까?”

성다는 계장과 김민희 계장은 머리를 맞대고 커스텀 주얼리 클래스에서 직접 만들어볼 팔찌와 귀걸이 디자인을 신중하게 골랐다.

“평 집게와 라운드 집게 사용법을 제대로 익혀야 합니다. 이 도구를 이용하는 O링과 구(9)자말이 기법은 주얼리 만들기의 기초라고 할 수 있죠. 도구 이용에 대한 감각을 익히면 자신이 원하는 주얼리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클래스가 시작되고 강사가 주얼리를 만드는 데 필요한 도구 사용법을 설명하자 성다는 계장과 김민희 계장의 눈이 어느 때보다 반짝거렸다. 첫 번째 클래스는 팔찌 만들기. 체인 등 부자재를 연결해 팔찌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것이 O링이다. 평 집게를 이용해 O링 틈을 벌려 부자재를 연결하고 다시 틈을 메우는 것이 핵심기법. 언뜻 쉬운 듯 보여도 지름 0.5cm조차 되지 않는 O링을 잡고 벌렸다 다시 오므리는 과정이 쉽지는 않다. 고도의 집중력과 섬세하고 정밀한 손재주가 필요했다.

“오전부터 종일 컴퓨터를 보고 일하다 보면 오후 4시가 되면 정말 눈이 빨개지는데, 이 작업은 1시간만 해도 눈이 빨개질 것 같아요.”

“너무 작아서 집중하지 않으면 금세 망가질 것 같아 조마조마해요” 강사의 말에 따라 차분하게 집중하던 김민희 계장이 먼저 엄살 아닌

엄살을 부렸다. 그 말에 성다는 계장도 기다렸다는 듯이 맞장구를 쳤다. 그런데 한 번 두 번 연습을 반복하자 평 집게 사용이 손에 익으면서 조금씩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강사는 “두 분 다 어느새 감을 잡은 것 같다”면서 자세가 안정적이라고 칭찬했다.

O링으로 각 체인을 잇고 마지막으로 펜던트를 연결하자 어느새 팔찌가 완성됐다. 펜던트에는 ‘D.E’, ‘M.H’ 등 각자 이름 이니셜을 새겼다. 성다는 계장과 김민희 계장은 각자 완성한 팔찌를 착용하고 손을 맞잡았다.

“정말 근사하죠? 오늘은 저희가 ‘커플’입니다.”



이룬 것들, 그리고 이루고 싶은 꿈들

팔찌를 완성한 후에 두 번째 클래스, 귀걸이 만들기를 시작했다. 귀걸이를 만들기 위해서는 라운드 집게로 T핀을 눌러 잡고 돌려 O링을 만드는 구자말이 기법을 익혀야 한다. 이 역시 정교하고 섬세한 손놀림과 집중력이 필요하다. 이번에도 성다는 계장과 김민희 계장은 빠르게 감각을 익히고 곧바로 실전에 돌입했다. 직접 고른 귀걸이 디자인에 맞추어, T핀에 진주를 먼저 끼우고 물방울 모양의 비즈, 동그란 모양의 비즈 순으로 끼워 O링을 만들자 순식간에 귀걸이 형태가 완성됐다. 여기에 귀에 고정하는 고리를 끼워주면 끝. “우와 신기해. 예쁘다.”

귀걸이를 완성하자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소리쳤다. 둘은 거울을 보며 자신이 직접 만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귀걸이를 착용했다. “성취감이 상당해요. 처음엔 힘든 기술이나 기법을 왜 익혀야 하는지 몰라 답답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오롯이 만드는 것에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작은 부자재들이 모여 제가 원하는 주얼리가 되는 게 신기해요.”

어린 시절부터 유독 꽃을 좋아해 플로리스트를 꿈꾸기도 했다는 성다는 계장은 꽃을 활용해 주얼리 디자인을 해봐도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리고 대화는 자연스럽게 꿈 이야기로 넘어갔다. 한때 아나운서를 꿈꿨다는 김민희 계장은 아나운서가 아닌, 은행원으로 일하는 지금이 좋다고 했다. 고객을 만나고 원하는 것을 서비스하는 일이 즐겁고, 워라밸이 있는 현재의 생활에 만족한다는 것. 이어서 올해 각자 하고 싶고 이루고 싶은 꿈에 대해서도 공유했다.

어린 시절 배우고 싶었던 발레를 1월부터 시작했다는 김민희 계장은 어느 정도 자세를 잡을 수 있게 되면 발레리나인 자신의 모습을 사진으로 남기고 싶다고 했다. 성다는 계장은 오랜 기간 해온 필라테스와 요가에 더해 개인 트레이닝을 받아 연말께 자신만의 특별한 바디 프로필을 찍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반짝반짝 빛나는 주얼리 사이에서, 서로의 꿈과 바람을 이야기하는 이들의 눈빛이, 그 마음들이 더 반짝거리는 듯했다. ☺



MINI INTERVIEW



대치동지점 성다는 계장

“맛있는 커피를 고객에게!”

저는 꽃이나 주얼리만큼이나 커피를 좋아해요. 예전엔 한편에 꽃을 들여놓은, 커피가 정말 맛있는 카페를 운영하고 싶다는 꿈을 꾸기도 했죠. 요즘엔 은행에 제가 좋아하는 것을 접목할 방법이 없을까를 고민해요. 맛있는 커피를 고객에게 서비스하는 은행이 있다면 어떨까요? 근사하지 않나요?



인천논현역지점 김민희 계장

“주얼리 디자이너보다 은행원 김민희!”

손끝에서 하나의 주얼리가 완성되는 것을 보니까 정말 신기하고 재밌었어요. 주얼리 디자이너는 훨씬 더 다양하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은행원 김민희가 ‘딱’ 맞아요. 고객의 생각을 읽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 일이 정말 좋거든요.

“
계장님 덕분에
우리은행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졌습니다
”

글. 김민선 사진. 정우철(스튜디오집)

고객 만족 이야기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이하 중기청) 대출 업무를 위해 송실대역지점을 찾았습니다.

앞서 대출을 받은 친구들이 타행에서 진행할 때 어려움을 겪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터라 여러모로 걱정이 됐었습니다.

걱정과 달리 장흥준 계장님은 핵심 내용만 잘 정리해 주셔서 덕분에 효율적이면서 깔끔하게 대출 업무를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또 무엇보다 대출업무 외에도 친절하고 예의바르게 대해 주셔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은행을 애용하겠습니다.

장흥준
송실대역지점 계장



Q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2020년 2월 입행한 장흥준입니다. 선망하던 우리은행에 입행해 송실대역지점에서 가계여신을 맡고 있습니다. 원하는 곳에 취업했다는 자부심이 있었는데 막상 은행생활을 하다 보니 어려움에 연속이더라고요. 이제야 업무에 적응이 되나 싶을 때 칭찬을 받게 되어 이번 일을 원동력 삼아 일하고 있습니다.

Q 입행 1년 차임에도 불구하고 중기청 업무에 능숙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저 또한 고객님과 같은 사회초년생이라는 처지에 공감했고, 그래서 더 확신하고 보셔야 할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가계여신 업무를 진행하면서 여러 서류들을 자세히 그리고 비교하면서 검토하다 보니 사회초년생이라면 잘 알지 못하거나 놓치는 부분들을 알려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고객님의 재정상황을 파악해 요청하지 않은 부분도 우리은행 내에서 도와드릴 수 있는 점을 말씀 드렸습니다.

Q 칭찬이 원동력이 됐다고 하셨는데요. 입사 1년을 돌아보니 어떠셨나요?

고객님한테 혼이 많이 나기도 하고, 실수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지점 내 선배님들이 격려해 주시고 특히 팀장님은 업무를 보시면서 화를 내는 고객님의 화를 누그러뜨릴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덕분에 제가 자신감을 잃지 않고 적응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Q 앞으로 목표와 계획이 궁금합니다.

단기적인 목표는 고객님의 최소한으로 지점에 방문하실 수 있도록 챙겨야 할 서류를 미리 말씀드리고, 주신 서류는 꼼꼼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장기적으로 처음 입행했을 때 기업금융 전문가가 되겠다는 목표를 위해, 가계여신부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를 만나는 고객님들이 우리은행을 좀 더 믿고 이용하실 수 있도록, 그런 인상을 남겨드릴 수 있도록 일하고 싶습니다.

놓칠 수 없는 칭찬

“우리은행을 찾아가길 정말 잘 한 것 같아요”



칭찬 직원
주선영 소공동지점 계장

제가 기업 대출 때문에 두 차례에 걸쳐 소공동지점을 방문했습니다. 지금 소상공인들은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은행에 대출을 알아보러 갈 때 불안한 마음을 안고 갑니다. 그런데 소공동지점 박혜영 부지점장님과 주선영 계장님이 아주 친절하고 따뜻하게 대해 주셔서 걱정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두 분은 저뿐만 아니라 상담 중에 전화통화에도 친절하게 응대하셨습니다. 저도 서비스업 종사자인데, 같은 고객을 대하는 입장에서 분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사람이 재산이라고 하던데, 두 분은 우리은행에 꼭 필요한 분들이자 재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덕분에 정말 마음 편히 업무를 볼 수 있었고, 우리은행을 찾길 정말 잘 한 것 같습니다. ☺

‘맛있는’ 봄 spring

여행지의 날씨, 분위기 못지않게 맛이 오랫동안 여행지의 기억을 지배하기도 한다.

그래서 ‘금강산도 식후경’은 오랫동안 불변의 법칙으로 통하는 것은 아닐런지….

그 불변의 법칙이 코로나19 상황에서 더욱 맞아떨어진다. 여행지에 마음대로 갈 수 없는 때에 여행지의 맛으로 입과 마음을 달래는 것이다. 특히나 봄의 맛은 겨울 동안 지친 입맛과 감각을 깨우기에 적합하다. 봄에만 누릴 수 있는 맛으로 입맛도 살리고 여행의 아쉬움도 달래보자.

글. 편집실 사진제공. 한국관광공사 사진장소. 광양 매화마을





섬진강 별미, 벗굴

봄 하면 꽃, 꽃 하면 빠지지 않는 곳을 꼽으려면 바로 전남 광양과 경남 하동일 것이다. 섬진강 강줄기를 사이에 두고 왼쪽 전남 광양에서는 매화가 봄소식을 알린다. 그리고 좀 지나지 않아 오른쪽 경남 하동에서는 벗꽃이 피어난다. 뿐만 아니라 광양 섬진마을의 매화와 구례 산동 산수유가 매화와 앞다투어 피기 때문에 3월 중 구례를 찾으면 산수유와 꽃망울을 틔우기 시작한 매화를 만날 수 있다. 그러니 매화마을을 찾았다면 당연히 산수유마을도 둘러야 한다. 꽃과 나무, 산길, 탁 트인 강변 등을 두루 둘러보았다면 이제 섬진강의 별미를 맛볼 차례다.

벗굴

꽃을 피워내는 건 육지만이 아니다. 섬진강도 봄이면 꽃을 피워낸다. 남해와 만나는 섬진강 하구에서만 맛볼 수 있는 '벗굴'을 피어낸다. 벗꽃이 필 무렵이면 맛이 좋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봄에만, 섬진강 하구에서만 맛볼 수 있는 굴은 크기가 거짓말 약간 보태어 성인의 얼굴 크기 만하다. 일반 굴의 10배 크기가 난다고 보면 되겠다. 일단 크기로 마음을 빼앗고 거기에 민물과 바닷물이 고루 섞인 맛이다. 짭짤한 일반적인 굴과는 맛이 달라 생으로 호로록 먹었을 때의 맛은 상상과 직접 맛보는 것에 맡기겠다.



광양·섬진강변 여행코스

매화마을 ▶ 돈탁마을 ▶ 망덕포구 ▶ 배알도 김시식지

봄바다의 맛, 가자미

산, 바다, 호수를 모두 갖춘 국내 여행지가 그리 많지 않다. 그래서 봄 여행지로 속초를 추천한다. 속초는 속초에 진입하는 속초C부터 시내에 이르는 노학동 관광로에서 온천로 도로에도 오래된 벚나무들이 장관을 이뤄 드라이브 코스로 제격이다. 또한 속초의 대표 관광지인 설악산의 벚꽃터널은 665m 길이의 산세와 어우러진 명소다. 드라이브로 벚꽃을 즐기기에 제격인 곳이 속초만한 곳이 없다는 이야기다.

대중교통을 이용해 속초를 방문할 때에는 속초시외버스터미널과 가까운 한국전력공사 정원의 벚꽃과 영랑호의 벚꽃으로 드라이브의 아쉬움을 달래도 좋다. 산으로, 바다로, 호수로 벚꽃을 즐겼다면, 별미로는 해산물을 즐기는 게 '진리!' 새콤매콤 입맛을 돋우는 가자미식해를 속초 봄의 맛으로 소개한다.

가자미식해

가자미는 계절과 관계없이 언제나 먹을 수 있는 생선이지만, 가장 맛있는 철은 3월이다. 제철 맛은 가자미는 싱싱한 회로 먹거나 매콤한 식해로 만들어 먹는 것. 지금 속초에 가면 포근한 봄 바다의 정취를 즐기며 가자미를 맛볼 수 있다. 속초의 향토음식인 가자미식해는 본래 함경도 지방 고유의 저장 음식이다. 고춧가루 양념에 가자미를 삭혀 만든 일종의 '젓갈'이다. 속초사람들에게는 매일 먹는 김치처럼 익숙하다. 가자미식해를 아바이순대에 곁들이는 일반찬처럼 생각하면 되겠다. 속초 중앙 갯배 선착장 근처에서 가자미식해를 곁들이 아바이순대와 함흥냉면을 맛보자. 함경도 음식인 가자미식해가 속초의 향토음식인 데에는 피난 내려와 고향 가까운 청호동에 자리잡았다가 돌아가지 못한 함경도 출신들이 그리움과 향수를 달래며 만들어 먹은 음식이 순대, 냉면, 가자미식해였던 것이고, 아바이마을에 순댓집이 많은 것도 이런 배경 때문이다.



속초 여행코스

설악산 ▶ 갯바위 ▶ 영랑호 ▶ 속초관광중앙시장



솔숲,갯벌에 부는 봄바람 꽃게

태안은 바다를 좋아하는 여행자들이 소소하게 찾는 한적한 지역이다. 너른 송림과 수백km에 이르는 해안, 아담한 해수욕장에 사구까지 품은 실은 알고 보면 알짜 여행지다. 바닷가 솔 숲길을 따라 바다로 나하면 갯바람이 불고 천리포수목원에 봄꽃이 피어난다.

특히나 천리포수목원의 경우에는 한국관광공사에서 선정한 비대면 안심 관광지로 선정될 만큼 생활 속 거리두기가 가능한 힐링 여행지 25개소 중 하나다. 🌊

계곡지

봄기운 가득한 시장은 어떤 때보다 생동감이 넘친다. 봄이란 기운에 설렘이 배가 되나보다. 봄 제철 먹거리로 꼽히는 또 다른 맛은 꽃게다. 살도, 알도 짝 찬 봄 꽃게는 서해안 암계가 그 맛을 자랑할 때다. 봄 꽃게 맛은 4~5월이 최고로 계장이나 찜도 좋지만, 서해안에서만 맛볼 수 있는 메뉴, '계국지'로 봄의 달큰함과 시원함을 느껴볼 것을 추천한다. 태안군의 안면도 지역에서는 계장에서 건더기를 건진 후 남은 국물은 보관했다가 갯벌에서 잡은 게를 더 넣어 계장을 다시 만들었다고 한다. 여러 차례 계장을 담가 진해진 국물은 김치를 담글 때 양념으로 이용한다. 이 김장이 익어 맛이 들면 갯국의 짠맛과 호박의 달큰함이 어우러져 조화를 이루는 계국지가 탄생했다고 알려져 있다.



태안군 여행코스

천리포수목원 ▶ 신두리해안사구 ▶ 백사장포구 ▶ 꽃지해수욕장



1. 백사장포구 야경
2. 광양 매화마을
3. 속초 갯배





직장의 많은 업무는 협업을 통해서 이뤄진다. 그래서 다양한 구성원, 즉 동료와 좋은 관계를 맺을수록 업무 효율과 성과를 높일 수 있다. 직장 내 원만한 인간관계가 곧 능력이다. 실제로 마음이 잘 맞는 사람이 곁에 있다고 믿으면 여러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난다. 인간관계를 위해 늘 노력하지만 직장 내 인간관계는 특히나 어렵지 않은가. 마음이 잘 맞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끔은 동료의 마음을 훤히 들여다보고 싶을 때가 있다.

정리. 편집실
 참조. <직장생활의 99%는 관계다>(이현주 저, 메이트북스), <출근길 심리학>(에노모토 히로아키 저, 한국능률협회컨설팅)

건강유지 및 증진에 중대한 역할을 하는 동료

직장에서 매일 출근하며 봐야 하는 사람들과 관계가 불편하면 하루하루가 고역이다. 직장동료나 상사는 아무리 관계가 불편해도 매일 마주쳐야 하고 심한 경우 불편한 관계로 부서 이동이나 퇴사까지 고민하기도 한다. 이러한 동료와의 관계에 대해 심리학자들은 “직장 내 사람과 다 잘 지낼 수 없고 그래야 할 필요도 없다”고 강조한다. 직장에서 나와 잘 통하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겠지만 당연한 일은 아니다. 그만큼 마음 맞는 입사동기, 상사, 부하직원을 통틀은 동료를 만나는 것은 ‘행운’이다. 실제 마음이 잘 맞는 사람이 곁에 있으면 여러 긍정적인 효과를 얻는데 이를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 효과라고 심리학에서는 말한다. 타인으로부터 얻어지는 여러 가지 형태의 원조는 그 사람의 건강 유지 및 증진에 중대한 역할을 한다는 것, 동료와 관계가 좋으면 나의 건강과 삶의 질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사례 1] 허물없이 다가오는 동료 괜찮을까?

친분이 서로를 더 아프게 할 때가 있음을 알기에 다가오는 동료가 걱정되는 이들이 있을 것이다. 또, 나는 별로 친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다가서는 동료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오해를 심어주기도 한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은 ‘NO’, 한마디다. 동료의 부탁에 ‘NO’라고 답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본다. 업무는 물론 개인적인 부탁을 했을 때, ‘NO’라고 답할 수 없다면 거리를 다시 설정할 필요가 있다.

[사례 2] 소극적이어서 너도, 나도 힘들다

한 동료의 소극적인 성향 때문에 오히려 주변 사람이 힘들어할 때가 많다. 오히려 내가 상처를 주는 것은 아닌지, 의견을 못 내게 했던 것은 아닌지 불필요한 피곤함을 불러오기 때문이다. 이럴 때는 상호 간의 신뢰가 더 필요하다. 상호 간 두터운 신뢰는 평소 상대가 중요한 존재라는 걸 느끼게 해 준다. “평소 어떻게 생각하세요?”라고 의견을 구하는 질문을 통해 호감을 표시한다. 표정을 통해 꾸준히 호감을 표시해 보는 것이다.

[사례 3] 마땅치 않은 동료, 나만 이상한 걸까?

꼼꼼한 일 처리로 완벽한 업무를 해내는 것은 직장인 모두의 목표다. 누구나 인정할 만한 업무처리를 위해 노력하는데, 협업하는 동료가 마땅찮을 때가 있다. 말하자니 관계가 틀어질 것 같고, 내가 모두 해내자니 버거운데 다른 사람들도 아무도 이야기 안 하고 있는 걸 보면 나만 이상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 답은 결국 동료에게 있다

가족, 연인보다 직장의 생활을 더 잘 아는 것은 동료이기에, 그래서 더 의지가 되고 힘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강점과 심리적 접근을 활용해 소방관이 화재나 사고 현장에서 겪은 트라우마에 대한 상담은 동료 소방관 상담사가 직접 진행한다. 개인적인 문제는 외부 전문가에게 맡기지만 내부 직무스트레스 등은 근무패턴을 잘 아는 심리상담을 전공한 동료가 효율적으로 상담 및 치료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같은 현장에서 근무하는 소방관으로서 그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 결국 동료의 문제는 동료가 해답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그럼 나는 어떤 동료일까?

상대방의 잘못에만 집중하면 정작 내 잘못은 잘 보지 못한다. 상대방이 내게 좋은 동료가 되어주길 원한다면 내가 먼저 그런 사람이 돼야 할 것이다.

자가진단 해보기

- 요즘 따라 갑자기 칭찬을 많이 해준다.
→ 업무적으로 자신감이 떨어져 보인다는 것일 수 있다.
- 내 의견은 탐탁치 않아 하는 것 같다.
→ 자신감만 넘치거나, 자료 없이 동료의 의견에 자주 반대를 외치는 건 아닌지 되짚어 본다.
- 업무 외적인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는다.
→ 다가가기 어렵다고 느끼고 있다.
- 서로서로, 우리는 한 팀과 같은 말을 자주 들었다.
→ 본인의 일만 충실한 것은 아닌지 확인해 본다. 동료의 일, 팀의 분위기를 살펴본다.
- 업무를 전달받을 때 상사의 설명이 길며, 이해했다고 묻는다.
→ 업무 이해도나 성실도 측면에서 부족함이 느껴져서 일 수 있다. 말은 일의 완성도를 높여보자.
- 급하거나 중요한 업무는 항상 내 손을 떠난다.
→ 업무의 마무리가 부족해서일 수 있다. 꼼꼼하게, 보고나 마무리 시간보다 조금 더 일찍 마무리하는 습관을 들여보자. 🎧

3월 24일, '잇몸' 사랑을 확인하세요!

3월 24일은 잇몸의 날이다. 삼(3)개월마다 잇(2)몸을 사(4)랑하자! 의미를 담고 잇몸의 중요성과 잇몸관리의 필요성을 위해 만들어진 날이다. 소중한 치아를 지탱해주는 잇몸, 잇몸의 날을 앞두고 잇몸을 사랑하는 방법을 우리가족에게 전한다.

정리, 편집실 참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일산병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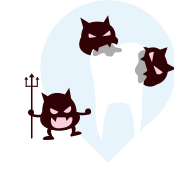
치아를 감싸고 있는 치조골이 부실하거나, 부실해지거나 혹은 치조골, 치주인대, 치은 등 치아 주변 조직에 염증이 생겨서 발생하는 질환을 잇몸병이라고 부른다. 잇몸병은 평소 풍치라는 명칭으로 불린다. 치주질환은 치아 주변 조직만이 아니라 전신건강을 위협하는데 그 심각성이 있다. 치주병을 일으키는 세균이 잇몸 속의 혈관으로 침투해 온몸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다 심혈관계 질환, 폐질환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또 췌장암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며, 특히 치주병이 있는 환자는 당뇨병에 잘 걸리고 당뇨병이 있는 경우 치주병이 악화될 수 있다.

치주병이란?

치주병은 자각 증상이 천천히 나타나며, 치주병은 치주염과 치은염으로 나뉜다. 치은염은 염증이 치은에만 국한된 형태며, 가벼운 질환으로 회복이 빠르다. 통증이 별로 없어 소홀히 여기기 쉬우나 방치하면 치주염으로 방치할 수 있다.

치주염은 치은에 생긴 염증이 치주인대나 치조골(잇몸뼈)까지 퍼진 상태다. 잇몸 조직과 치아 뿌리까지 손상된 상태로 더 심해지면 치조골이 파괴돼 발치나 임플란트를 해야 한다.

“잇몸을 꼼꼼히 관리하기”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치주염의 증상은 잇몸이 붉게 변하고 잇몸이 부어 음식 섭취 시 혹은 섭취 후 부분적 통증이나 압박감이 발생하는 것이다. 또한 이가 시리거나 이물감, 잇몸 출혈 및 구취를 경험할 수 있고 심한 경우 고름이 나오거나 이가 흔들리는 경우도 있다.

우리의 몸 자체 면역 기능이 독성의 염증반응과 맞서서 균형을 잡으려 하지만 그 균형이 무너지면 잇몸 조직이 파괴된다. 오랫동안 그 과정을 반복하면 어느 순간 치주질환으로 인해 잇몸이 많이 파괴돼 약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치태, 치석을 제거해 주는 약은 없으므로 세균의 서식지인 치태와 치석을 없애는 치과 치료가 이뤄져야 한다.

치주질환 증상



- 이를 닦을 때나 칫솔질을 할 때 잇몸에서 피가 나온다
- 잇몸 색이 연분홍색이 아니라 검붉게 변해 있다
- 잇몸이 들뜨고 치아가 약간씩 흔들린다
- 나쁜 입 냄새가 난다
- 치석이 많이 끼어 있다
- 이가 시린 적이 있다
- 이가 조금씩 흔들리는 곳이 있다
- 잇몸이 자주 붓는다
- 잇몸에서 고름이 난다
- 피곤하면 이가 들뜨다

잇몸 결과 속 관리하기



주기적인 스케일링 및 치간칫솔, 치실, 구강청결용액을 가까이!

치주병의 원인은 플라크라는 치태다. 치태란 치아 표면에 붙은 세균 덩어리의 얇은 막으로 약에 의해 제거가 되지 않고 칫솔질을 통한 기계적 방법에 의해서 제거된다.

치석이 제거되지 못하면 들처럼 단단한 치석이 돼 잇몸을 공격하고 치태와 치석의 원인균이 혈액을 통해 체내 돌아다니면서 다양한 질환의 원인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스케일링(치석제거술)은 일반적으로 1년에 2회 정도, 흡연자와 잇몸병이 있는 경우에는 1년에 4회 정도, 30대 후반 이후엔 발병의 소지가 높으므로 정기검진이 필요하다. 여성의 경우 결혼이나 임신 전에 받아두어야 한다. 임신 중에는 잇몸질환이 잘 생기고 그 치료도 마땅하지 않기 때문이다.



올바른 칫솔질 다시 한 번 점검하자!

• 하루 3번은 기본 음식물을 먹은 후, 잠자기 전은 반드시 양치질을 해야 한다

• 나의 치아상태에 맞는 칫솔을 사용하고 3개월마다 교체해 준다

• 치아 표면보다는 치아 사이 잇솔질을 하는 느낌으로 양치질을 한다

• 치약은 칫솔모의 1/3에서 반 정도만 짜서 사용하며, 물을 묻히지 않는다



치료보다 예방이 중요

어떠한 질병이건 간에, 치주질환도 마찬가지로 조기발견, 초기치료가 중요하다.

6개월 간격으로 치과를 방문하면 조기발견과 조기치료가 가능한 것이 치주질환이다. 구강 보건을 위해 정기적인 내원과 스케일링을 게을리 해선 안 된다. 🔄

당신은 언제 동료에게 가장 ~ 고마웠나요?



여기까지 견딜 수 있었던 건 결국 사람이다. 동료, 당신이 있어 주어서, 마음에 힘이 되어 주어서 다시 또 함께 나아가고 있다. 내 마음을 두근거리게, 또 동료의 마음을 두근거리게 한 사연, 3월호 <우리가족> '두근 DO GOOD'에서는 지친 동료에게 힘이 되는 방법이라 쓰고, 나에게도 힘이 됐던 이야기를 담는다.

정리. 편집실(해당 사연은 <우리가족> 스페셜리포트 3월호 설문을 통해 취합된 익명의 내용으로, 재구성을 통해 소개합니다.)

누구에게나 유독 힘든 날이 있다. 시간이 지나면 왜 힘들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상황이 무엇이든 힘든 날 말이다. 직장생활에서의 '그날'은 가족도, 애인도 위로가 되어주지 못한다. 직장이라는 한 공간에 있는 동료만이 위로가 된다.

*** 두근 DO GOOD 참여를 기다립니다**

행내포털에서 <우리가족> '두근 DO GOOD' 게시를 확인하시고 캠페인을 신청해 주세요. 선정을 통해 캠페인 참여 물품 등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 참여방법 : 행내포털 <우리가족> '두근 DO GOOD' 게시물 내 신청. 진행하는 캠페인에 따라 간단한 후기 작성과 사진을 편집실에 제공해 주셔야 합니다.

동료랑 ~ 무슨 친구가 돼



직장동료와는 일정한 거리를 두는 것이 사회생활을 잘하는 방법이라 생각했다. 시시콜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주변 동료들을 보면서, '저래도 되나?' 괜한 걱정이 들 때도 있었다. 나만의 선을 지키면서 도움이 필요할 땐 도움을 받고, 도움을 주는 관계를 이어나가는 적당한 동료 사이를 유지했다. 그리고 새로운 지점에 와 보니 첫 발령지에서 만난 동료들이 그 이상의 인간적인 관계로 남아있다.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매일 메시저로 격려하고 도우며 경조사를 챙긴다. 휴일이나 퇴근길 시간이 맞으면 만나 예전의 일로 몇 시간의 수다를 떠다.

• 두근 DO GOOD_ 업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힘들 때 옆에서 말없이 도와주고,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해 주는 동료. 친구보다 더 가까운 사이 아닌가요.

달콤한 시간 동료와의 ~ '커피 수혈'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음을 알린다. 깜빡깜빡, 메시지를 확인하지 않아도 이젠 커피 한잔하자는 신호임을 직감한다. 당 떨어지는 시간에 맞춰 누가 먼저 보낼 것도 없이 약속이나 한 듯 커피잔을 들고 삼삼오오 모여든다. '커피 수혈'과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한숨 돌리고 나면 다시 일하러 갈 기운이 생긴다.

- 두근 DO GOOD_ 아침에 커피 한잔하면서 어제 하루 힘든 일 이야기 하면 다시 하루를 시작할 힘이 생기죠.
- 퇴근 길 고생했다는 메시지 하나만 받아도 피로가 풀려요. 같은 주제로 수다를 떨 수 있고, 아파할 수 있는 공감대가 있어서 힘이 납니다.

당신은 ~ 피로회복제



몸이 무거워 출근하기가 쉽지 않았다. 의무적인 발걸음으로 회사에 와서 몸과 마음만큼이나 무거운 가방을 내려놓았다. 털썩 앉아 파티션을 사이에 둔 동료에게 인사를 건넨다. 인사로 시작한 시시콜콜한 잡담, 몸은 무겁지만 수다는 가볍게! 중요한 이야기도 아닌데 수다 속에 스며들어 웃어대니 무거웠던 몸도, 마음도 가벼워진다.

• 두근 DO GOOD_ 어제 봐어도 어제 이야기를 하고, 같은 주제로 무한대로 수다를 떨 수 있는 공감대가 있어 힘이 납니다.

샌드위치가 ~ 나를 올려



어제는 어떻게 퇴근을 했는지 모르겠다. '아, 오늘은 잘할 수 있을까?' 출근길이 오늘따라 더 멀기만 하다. 터덜터덜 어느새 도착한 사무실. 늘 같은 책상인데 무언가 다르다. 샌드위치와 함께 놓인 메모 '힘들지? 이거 먹고 힘내!' 메모를 보자마자 코끝이 찡해졌다. 그 자리에서 울 수도 없는 노릇. 작은 샌드위치 하나가 뭐라고, 나를 올린다.

• 두근 DO GOOD_ 7년 만에 보는 기업여성 업무가 서툴러 점심도 못 먹고 일하는데 후배가 내미는 샌드위치와 음료수를 볼 때! '아니아~ 앞으로 절대 사오지마!' 그랬지만 속으로 너무 고마웠어요.

좋은 동료는 ~ 내가 힘이 되는 동료다



상부상조가 없으면 내가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고 해도 남이 나를 좋은 사람이라고 여기지 못한다. 나의 자리에서 묵묵히 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 매일 최선을 다하며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어야겠다는 생활신조를 이루며 사는 것이 나의 가장 큰 목표였다. 그래서일까? 나에게 소중한 동료가 많은 것 같다. 속이 뻥 뚫릴 만큼 시원하게 욕해 주는 입사동기, 술 한잔을 하면서 하루의 회포를 풀어주는 선배님, 힘내시라며 조용히 간식거리를 두고 간 후배. 더 열심히 해서 내가 더 힘이 되는 동료가 되어주고 싶다. ☺

• 두근 DO GOOD_ 고객응대 시 곤란한 일이 생겼을 때 도움을 청하지 않아도 먼저 달려와 도와주고 묵묵히 어깨 토닥여 줬을 때, 때로는 많은 말보다 묵묵히 옆에 있어주는게 더 큰 힘이 된다는 걸 느꼈어요.

새로운 시작하기 좋은 때, 봄 그리고 새벽

글: 대치남지점 이용기 계장

지난 주말, 햇살과 바람에서 따스함이 느껴졌다. 이제는 옷의 무게도 조금은 가벼워졌고 이에 맞춰 산책하는 사람들의 발걸음도 한결 가벼워 보인다. 다시 봄이 오고 있다. 아직은 마스크를 써야 하는 반쪽짜리 봄이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봄은 늘 설레는 계절이다. 포근한 날씨나 피어난 꽃 때문일까? 혹은 '입학'이나 '개강'처럼 우리에게 시작을 알리던 단어들이 모두 3월에 해당하기 때문일까? 한 해의 시작은 1월이지만 어쩌면 새로운 시작에는 3월이 더욱 어울리고 또 익숙한 것 같다.

대학을 졸업한 이후 취직을 하며, 나는 하루에도 수차례 다양한 '부캐'로 생활하게 되었다. 출근을 하면 '막내 계장'이라는 계정에 접속하고 그럼에도 고객님 앞에서는 '그럴듯한 전문가'의 모습으로 로그인하곤 한다. 작년부터는 '남편'이라는 계정이 새로 추가되었으며, 가끔은 '친구'의 계정에 들어가기도 했다. 그렇게 '부캐' 속에서 바쁘게 지내다 보면 '나'라는 '본캐'를 잊은 채 잠자리로 향하곤 했다. 한 살 더 나이를 먹을수록 늘어나는 많은 역할과 의무 속에서 진짜 '나'라는 본캐에는 점점 더 소홀해져만 가는 기분이다. 그럴수록 내가 좋아하는 일들은 뒤로 밀리게 된다. 아픈 곳은 없는데 몸은 무겁고, 마음만 조금만 그런 날들이 계속됐다. 뭔가 해야 할 일은 많아지는 것 같은데 시간은 나를 자꾸 재촉하기만 한다. 나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든 바꾸고 싶어졌다. 변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나는 봄바람이 문을 두드리기 전인 지난 2월부터 '새벽 있는 삶'에 도전하기 시작했다. 어느 아침형 인간처럼 4시 30분에 일어나는 경지에는 닿지 못했지만 5시 40분이면 무거운 몸을 이끌고 이를 닦고, 명상이란 이름의 명을 때린다. 죽히 딱딱한 차 한 잔이 우리나라기 충분한 시간이다. 애매하게도 5시 40분인 이유는 나에게 10분의 녹장을 선물하고 싶기 때문이었다. 시간이 남으면 설거지나 빨래 정리처럼 밀렸던 집안일을 하거나 가볍게 운동을 하기도 했고, 그래도 남는 시간에는 틈틈이 책을 읽기 시작했다. 그렇게 한 달이 흐르자 읽고 싶었던 책도 2권 읽었고, 이런저런 세상 돌아가는 소식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물론 다시 잠들어버린 날도 있다. 하지만, 새벽이 나에게 '무언가 시작하기 좋은 시간'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아직 <나의 하루는 새벽 4시 30분에 시작된다>의 김유진 변호사님처럼 책을 쓰거나 유튜브 콘텐츠를 만드는 성과 있는 일을 해내지는 못하고, <미라클 모닝>의 할 엘로드의 말처럼 특별한 습관들로 그 시간을 채워나가지도 못하고 있다. 영업점에서 누구보다 하루를 치열하게 보내기에 어쩔 수 없이 조금 더 피곤하다는 핑계가 겹겹적이지만, 내가 주도하는 시간으로 하루를 시작한다는 사실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늘어난 시간은 1시간이지만 물리적인 시간 그 이상의 의미가 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시간을 좀 더 의미 있는 일들로 채우고자 한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내고 하나씩 해내다 보면 봄처럼 새벽도 설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

함께 만드는 우리가족

애독자 퀴즈

이번 호 행내보를 꼼꼼히 읽었다면 맞출 수 있는 코너!
정답을 <우리가족> 웹진 '독자후기'로 보내주시면 정답자를 추첨해 선물을 드립니다.

QUIZ

치아의 목 부분에서부터 치아뿌리를 덮고 있는 분홍색 점막조직이다. 주기적인 스케일링 등으로 결과 속 관리 및 질환 예방이 중요한 곳은?

(38~39p '바른건강상식' 코너를 확인하세요.)

① 이 ② 잇몸 ③ 양치 ④ 칫솔

알립니다

우리가 함께 만드는 우리은행 행내보 <우리가족> 소중한 시간을 내어 행내보 제작에 도움을 주신 가족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스페셜리포트 설문조사와 두근 DO GOOD, 함께 꾸는 DREAM(원데이클래스)를 신청해 보세요. 추첨을 통해 신세계 상품권, 참여 KIT, 원데이클래스 제공 등 <우리가족>을 위한 '선물'을 전달해 드립니다.

지난 호 정답 ▶

③ 스포츠 클라이밍

당첨을 축하합니다!

2021년 2월호 🍀

- 군산나운동지점 김주광 계장 (가족 김승관)
- 일산금융센터 나경운 차장
- 여신업무센터 이보라 과장
- 전농동지점 이은영 대리
- 아탑역금융센터 최윤정 대리

웹진으로 만나는 우리가족

우리은행 행내보인 <우리가족>을 웹진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QR코드 어플리케이션을 작동해 우측 상단의 QR코드를 찍어보세요. 태블릿 PC와 스마트폰 디바이스에서 <우리가족> 구독이 가능합니다.

<우리가족> 웹진에서 '독자후기'를 남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족> 제호 왼쪽 옆에 있는 ☰ (세줄)을 터치하면 웹진에서 독자후기를 남길 수 있는 메뉴로 이동합니다. 더 나은 <우리가족>을 위해 좋은 의견 남겨주세요.